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물건너간 석유화학 구조조정”

석유화학산업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제품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4분기 들어 채산성이 하락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들어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진단하는 언론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되어 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아마도 기초유분 가격하락보다는 LDPE, LLDPE, HDPE, PP, PVC, PS 등 범용 합성수지 가격이 고유가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톤당 280-29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성수지 가격은 톤당 700-800달러로 국제유가 15-20달러, 나프타 가격 200-230달러 때와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제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경영효율을 추진하고 마케팅을 강화한 들 별수가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현상황을 위기국면으로 규정짓고 타개책으로 비용절감과 고부가가치화 등을 가속화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20-30% 하락해 일반적인 코스트 절감대책이나 고부가가치화 대책은 장기적인 과제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현상을 타개하는 단기대책으로는 뚜렷한 이슈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10-11월이 석유화학제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수요는 구조조정에 따라 전방산업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이고, 해외수요는 중국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만성 수입국들이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수입시기를 늦추고 있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감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건축, 전기·전자, 자동차 등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수요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대폭 조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매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 M&A의 적극화를 내세우고 있다.

M&A를 통해 통폐합을 단행하고 노후설비 또는 잉여설비를 폐쇄해 생산능력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들이 과잉증복투자 해소를 위해 Big Deal을 추진한 7개 관련업종 중 석유화학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구조조정 약속시한인 2000년9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은 2000년2월 M&A가 무산된 뒤 홀로서기에 나서 9월말까지 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와 부채비율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조만간 외자유치」 공언만 남발한 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M&A가 성사되지 않는 것은 한국재벌 특유의 무분별한 소유욕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리한 과잉투자로 인해 2조-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고 재무자료가 투명하지 못해 잘못하면 숨겨진 부실을 온통 뒤집어쓸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엄청난 무채규모와 부실경영 및 불투명한 재무자료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을 감싸고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경제계나 산업계가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DJ 정부가 부실을

척결함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부실 석유화학기업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잠재부실로 안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DJ 정부는Big Deal을왜추진했는지, 그리고지금은구조조정만외칠뿐왜아무런대책을세우지않고있는지답해야 할것이다.

<화학저널 2000/11/27>